

# 김태흠 지사 “대통령 결단 환영...충남 국립의대 절실”

###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통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적극 지지” “의료 사각’ 지방 수도권 원정치료...지방의료 재건에 초점 맞춰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이며, 더 문제인 것은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1.5명으로 최악이라는 점”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지방의료 붕괴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1년 전 대통령을 독대해 건의 드린 사항도 바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이와 연계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해마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수백만 명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는 등 절박한 실정”이라며 “충남을 포함한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하는 김태흠 지사

또 “충남만 해도 전국 평균 기준 의사 수가 최소 5000명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3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이번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충남도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절박한 지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의사 확보가 절실하며, 국립의대 신설은 대통령 지역공약이기도 하다”라며 “220만 도민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은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추진위원회’ 결성 등 총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 의과대학 40곳의 입학 정원은 3058명이다. 도내에는 단국대(천안) 40명과 순

천향대 93명 등 2곳 133명이며, 국립의대는 없다.

2017~2021년 도내 의대 졸업자 656명(취업자 613명) 가운데 도내 취업 의사는 197명(32.1%)으로, 70% 가까이 타지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활동 의사 수는 3215명, 도민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1.51에 불과하다.

OECD 평균 3.7명이나 우리나라 2.6명에 비해 턱없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예산과 태안, 청양, 당진, 계룡 등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힘센충남은 지역내 의료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책 목표는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의료 역량 강화 △대학병원 유치로 의료의 신뢰와 안정성 및 주민 욕구 충족 등으로 잡았다. 김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했으며, 오는 지난 1월 지역내대우치TF팀을 꾸리고 본격 가동 중이다.

박옥분 기자

## 서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최

시장질문 및 조례안 15건, 동의안 8건 등 26개 안건 심의 예정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7일부터 10일간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기간 중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 4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안건 종류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8건, 승인안 1건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목 의원)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육내수급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투자유치과)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문수기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사건의 과징금 부과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임시회 회기 중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지역내 주요 사업 현장방문에 나선다. 19일에는 부석면 창리포구 일원, 서산호,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를 방문하여 관련 브리핑을 듣고 주요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며, 20일에는 문화예술타운 선정지, 양대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사현장, 대산항 제1부두 여객터미널 현황을 둘러보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3일부터 25일까지 시장질문이 있을 예정”이라며 “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 서산한서 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은 ‘봉사현장’

21일, 어려운 가정 ‘도배봉사’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한서로타리클럽(회장 한도현)은 지난 21일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 봉사현장에서 총재공식방문을 가졌다.

이날 박홍전 총재, 장광순 서산지역 대표, 김면수 사무총장, 류해권 사찰위원장 등 비롯한 한서 클럽 회원 가족과 스폰서한 가운 클럽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배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홍전 총재는 “한서 로타리클럽은 지구를 넘어 전국 최고의 봉사클럽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중견클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 영입과 재단 기부 등에도 관심을 갖고 클럽발전을 이끌어갈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서 로타리클럽은 회장단 임취임식과 총재공식방문 등 행사를 봉사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금현 기자

## 당진시, 2023 대학·일반부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개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2023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대학, 일반)’경기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가 주최하고 당진시, 당진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50개 팀(대학 및 일반부 선수 530여 명)이 참가한다. 단체전 34경기과 개인전 326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에서 충남 대표로 출전해 일반부 단체전 종합 3위를 달성한 당진시청 배드민턴팀 선수들도 참가한다.

오성환 시장은 “배드민턴은 이번 한겨울 아시아인 게임에서 7개의 메달을 수확해 우리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줬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배드민턴계를 이끌어 갈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겨루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최근 당진초 초등부



배드민턴팀이 전국대회 6연패,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 2년 연속 배드민턴 종합우승에 이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남 대표로 단체전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등 전국 최고의 배드민턴 도시이다.

박옥분 기자

## 보은대추축제장에서 화합의 장

제6회 보은군민의날 기념식 개최

보은군이 17일 보은읍 뱃돌공원에 마련된 보은대추축제 주무대에서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6회 보은군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재경군민회 황인학 회장, 최부림 보은군의회 의장, 박태흠 국회의원, 군의원, 향우회원, 군민 등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보은읍 난타, 삼승면 라인댄스, 회인면 사물놀이, 아미고 춤바네스, 대추골색소폰앙상블팀 등의 식전 공연과 개막선언, 효자·효부, 군정 발전 유공자, 우수 향우회원 시상, 기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 수한면이 고향인 선진정공(주) 박성수 대표의 고향사

랑기부금으로 500만원과 보은군민장학회에 500만원을 기탁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정수라, 선 경 등 정상급 가수가 출연해 군민과 향우회원을 위한 공연이 펼쳐졌다.

수상자로는 △효자·효부상에 이창희(보은읍), 윤윤용(장안면), 황진숙(내북면) △군정 발전 유공 표창에는 이광현(보은읍), 서홍복(속리산면), 김기학(장안면), 김장식(마로면), 임정순(탄부면), 이재술(삼승면), 박노형(수한면), 양선석(회남면), 정상환(회인면), 김창임(내북면), 유정열(산외면) △우수향우 회원 표창에는 재경보은군민회 이진희, 재부산보은군



▲ 제6회 보은군민의날 기념식에서 가수 정수라 씨가 공연을 하고 있다.

향우회 남영희, 재포항보은향우회 강창식, 재청주보은군민회 이기하, 재울산보은향우회 김순이, 재대구보은향우회 최명옥, 재부천보은군민회 강형화, 재대전보은군민회 배배식, 재안산시보은향우회 김한수, 재천안

보은향우회 이석재 등이 수상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기부자 재경보은군민회 황인학 회장에게 감사패와 재경보은군민회 정영기(전)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기국 기자

## 온양온천시장,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사격’

19일, 참여 독려 캠페인·행사 기간 먹거리존, 각종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이하 온천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양온천시장 상인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9일 온양온천시장상인회 회원들은 시 관계자와 함께 온양온천시장 내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온천산업박람회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캠페인

을 펼쳤다.

오는 26~29일까지 온양관광호텔 일원에서 열리는 온천산업박람회는, 본행사 외에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간은 온양관광호텔 앞 회전교차로에서 시민약국 앞 도로까지다. 이와 함께 온양온천시장 내 이벤트 광장에서 푸드트럭 먹거리존, 무대(가수)공연 등이 열린다. 온천산업

박람회의 즐길 거리를 한층 풍성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박람회 방문객들의 발길을 시장으로 돌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온양온천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온천산업박람회는 아산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적인 온천 관련 대규모 행사라 반갑다”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온양온천시장을 전국에 알리는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정일 기자

## 충주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단속 나선다

흡연행위 적발시 10만원이하 과태료

충주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지도 단속을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조성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9월 기준 충주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9,190개소를 대상으로 총 9,401건의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기자